

HOME > 뉴스 > 자치구공단

마포구공단,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 취득... 4연속 선정

김혜란 기자 | 승인 2025.12.30 20:00

오는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자격 유지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기념하는 공단의 한일용 이사장(좌), 황진택 경영본부장(우)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은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 지원 및 생애에 따른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인정받아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이 벌써 4회 연속 재인증으로, 이번 재인증을 통해 공단은 앞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결과는 공단이 그 동안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써온 결실이다. 특히 공단은 우수한 △출산휴가 및 남·녀 육아휴직 활용 △휴직 후 복귀율 △가족돌봄 및 장기근속휴가 활용 △가족친화 복리후생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일용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직장 문화 정착에 힘쓰며 일과 가정 양립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 권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